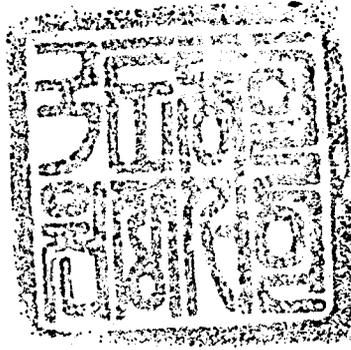


國統調 89-12-146

中國에서의 韓國語 教育: 現況과 展望

- 현행 초급중학교 교과서 『조선어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1989

研究責任

成光秀 (高麗大 教授)

國 土 統 一 院

책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中國居住 同胞들에 대한 民族教育으로서의 韓國語 教育實態 및 現況을 파악함으로써 效率的인 教育內容과 方法論을 研究·開發하고자 委囑한 特殊課題 研究結果입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關聯分野의 研究에 一助가 되기를 期待 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內容은 當院의 見解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1989. 12

調 査 研 究 室

目 次

I. 序 論	5
II. 學年別 內容體系	8
1. 1學年(제 1·2 권)	8
2. 2學年(제 3·4 권)	10
3. 3學年(제 5·6 권)	11
III. 題材 選定과 主題	29
1. 單元과 題材	29
2. 題材選定の 範圍	31
3. 主題와 表現	34
IV. 學習活動의 資料와 方法	43
1. 自習科間과 取扱하지 않을 科間	43
2. 提示와 演習	44
V. 技能伸張과 內容上的 妥當性 檢討	52
1. 技能과 領域間的 關係	52
2. 教材內容의 適切性과 連繫性	59
VI. 教科書上的 問題點과 效率的인 改善方案	63
1. 諸 問 題	63

2. 改善方案	65
VII. 結 論	67
參考文獻	71
ABSTRACT	73

I . 序 論

中國의 55개 民族 가운데 約 2百萬의 朝鮮族이 영향력있는 우수 민족으로 인정되고, 漢族을 제외한 少數民族中에서도 民族의 固有 特性을 가장 올바르게 그리고 가장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민족도 朝鮮族 즉, 우리 韓民族뿐이라는 일반적인 論評이나 견해를 부정 또는 의심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個人的 言語觀이야 어떠하든 言語와 思考의 不可分 關係와 民族性 유지의 제 1차적 요건으로서의 民族語 使用을 고려할 때, 僑胞 一世에서 三世에 걸친 在中 朝鮮族의 民族語 教育의 成果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 거주 교포들의 과반수에 달하는 在中 韓民族僑胞들의 民族語 教育은 中國政府의 少數民族(優待 또는 保護)政策의 비호라는 간접적인 원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在中僑胞들의 民族性維持를 위한 生存競爭의 手段(즉 유일한 最上의 方法)이므로 더 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어느 지역의 교포들보다 民族性이 강하고 民族語를 사랑하는 까닭은 民族語 教育의 效率적인 實行 또는 성공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實用的인 民族語 教育과 效率적인 二重言語(民族語와 現地語) 教育의 成果라 하겠다.

앞으로도 이러한 民族語 教育이 계속되는 한, 在中 朝鮮族은 견제한 것이고 朝鮮族의 諸能力에 따라 中國內 外國語로서의 韓國語(또는 朝鮮語)의 地位가 向上될 수 있을 것이다. 韓國語의 國際化란 곧 韓國

의 國力伸張이요 國威宣揚을 뜻하는 것이므로 바로 國家利益에 密接하게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在中 僑胞들의 民族語 즉, 韓國語 使用과 教育을 통해 中國內 韓國語의 地位向上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南北韓의 言語異質化를 극복할 수 있는 교량적 역할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더욱 분명히 해 둘 것은 在中 朝鮮族의 國적은 어디까지나 中國임을 명심해야 하고, 또한 그들이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南北韓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親北韓的 言語要素가 배제되면 南北韓의 言語 同質性 회복에 교량적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韓國語의 國際化와 韓國語의 異質化克服에 관심을 갖는다고보다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갖지 않는 한, 이를 위한 노력과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한 括目할만한 성과가 축적, 입증되어 가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은 朝鮮族 學校를 제외하고는 극소수의 大學 또는 學院에 朝鮮語文系가 있으나 그 규모가 영세한 편이고 진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¹⁾ 크게 실효를 거두고 있지 않은 듯하다.

註 1) 大學의 (東方) 語言文學部(또는 系)內 朝鮮語文系는 朝鮮語言文學를 학문적으로 전공하는 學科로서 극소수의 學生들만이 入學, 輩出될 따름이고, 學院 특히 中央民族學院의 朝鮮語教研室은 民族事務 담당 지도자 양성을 위한 朝鮮語教育을 關장하는 곳으로서 비교적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朝鮮族 學校로는 小學校, 初級中學, 高級中學, 專門學校, 師範學校 그리고 學院과 大學²⁾에 이르기까지 各級學校가 숫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도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東北三省(遼寧省, 黑龍江省, 吉林省)에 편중되고 있고 이 가운데서도 吉林省 특히 延邊地域에 집중되어 있다.

中國에서의 한국어 교육이란 이 東北三省의 朝鮮語 教育을 뜻하는 것이므로, 中國에서 第2外國語로서의 韓國語 位置가 확보될때까지는 이 三省의 民族語로서의 韓國語 教育만을 中國에서의 韓國語 教育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또는 실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各級學校의 韓國語 教育課程과 韓國語教育의 內容과 方法이 분석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具體화된 教材가 教科書라면 教科書內容을 분석함으로써 교육의 內容과 方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분석이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小論에서는 中國에서의 韓國語教育 現況을 파악하기 위한 韓國語教材의 內容分析을 시도하되 現行 初級中學校 教科書 「조선어문」의 內容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초급중학교용 「조선어문」은 中國의 東北朝鮮民族教育出版社에서 간행된 일종의 菊版型(850 × 1,168 毫米32開本) 6卷의 韓國語教科書로서 대상 학생은 小學校 6年과정 이수자 대상의 3년간 중학(초급)과정용이다.

註2) 大學은 大學校에 해당하는 綜合大學이나 農·工·醫科 계통은 제외된 高等교육기관으로서 延吉의 延邊大學 하나뿐이다.

Ⅱ. 學年別 內容體系

1. 1學年(第1·2卷)

중국에서의 각급학교 학기의 구분은 제1학기가 9월부터, 그리고 제2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므로, 초급중학교 교과서「조선어문」제1, 2권은 1학년용 1, 2학기에 해당하는 교재이다.

「조선어문」(초중) 제1권과 제2권의 내용 구성은 다음 (1)과 (2)로 간단히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題材內容의 領域上 分類는 觀點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편집이나 印刷上의 문제는³⁾ 고려하지 않더라도 내용 구성의 기준과 영역상의 분류가 남북한 또는 남한과 중국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 嚴格한 내용 분석이 어렵고 또한 상호대비가 무의미하다. 그러나 가능한 한 공통의 기준을 갖고 「조선어문」의 1, 2권을 검토하기로 한다.

위의 「조선어문」1권과 2권의 내용구성표 (1)과 (2)에서, 첫째 教材의 題材量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당 4(또는 5)시간을 기준으로 그리고 학기간의 차이(수업일수, 계절적 차이)를 고려할 때 題材量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 물론 이 가운데는 학교에서의 학습 또는 교수대

註 3) 「조선어문」제1권은 김동춘의 책임편집으로 되어 있고 延邊大學印刷廠에서 10.25印張 210千字를 1984.6 第1版, 1989.5 第7次印刷, 그리고 제2권은 책임편집: 류미옥, 延邊新華印刷廠 印刷: 9.625印張 183千字 1985.1 第1版, 1988.11 第5次印刷된 것임.

상에서 제외될 것이 이미 차례(目次)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⁴⁾ 취급하지 않을 과로 명시된 것이 1권에서 5개, 2권에서 3개의 과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2권의 27과 24개의 科(題材)에서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1,2권 내용 가운데 각 9개과는 자습 대상이므로 전체 題材에서 상당량이 학교 수업에서 축소되는 셈이지만, 각권 각 단원별로 독본교재 외의 내용(작문, 어휘, 말하기, 읽기 등)이 학교학습 대상에서 제외되는 題材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教材의 題材量이 과다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선정된 각 題材別 작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작자가 명시되어 있는 과는 1권 27개과 가운데 13개과, 2권 24개과 가운데 15개과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다양한 종류의 글내용을 한정된 범위에서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한정된 주제의 글을 충족시키기 위해 出典(또는 작자)을 밝히고 싶지 않은 편집의도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본다. 傳來 古典이 아닌 한, 작자가 반드시 있는 책임있고 우수한 내용의 글이 선정되어야 보다 충실한 내용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내용구성에 있어서 또 한가지 特徵的인 것을 지적한다면 글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또한 안배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低學年用 교재이므로 동화류가 많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를 포함한 소설류

註 4) * (또는 ※)가 있는 것은 자습과이고 △가 있는것은 취급하지 않을 과임.

가 詩보다 훨씬 많고, 실용문이 거의 없으며, 단원별 보충교재에서도 작문과 어휘론에 역점을 두고 기타 언어 사용기능이나 영역(문법 등)은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하겠다.

2. 2學年(第3·4卷)

초급중학교 「조선어문」제 3, 4권의 내용 구성은 제 1, 2권의 내용체계와 거의 같다. 다만 동화의 수가 줄어들고 각 題材의 길이가 조금 길어졌을 뿐 구성상의 원칙은 大同小異한 편이다. 이들 교재의 간행은 1, 2권의 경우와 거의 같이, 제 3권은 편집책임: 박수강, 연변대학인쇄창 印刷, 9.5印張 195千字, 1985.7 第1版, 1989.5 第5次印刷本이고, 제 4권은 편집책임: 남창송, 연변신화인쇄창 인쇄, 11.5印張 239千字, 1985.12 第1版 1988.11 第4次印刷本이다.

제 3권과 제 4권의 내용을 다음 (3), (4)의 구성표로 만들어 살펴보면, (3), (4)의 내용 구성에서, 22(題材數) - 10(자습용 및 불취급 제재수) + 8(보충교재 제재수)에 해당하는 200面 이상의 내용을 1학기에, 그리고 24 - 12 + 8에 해당하는 220面 이상의 내용을 2학기에 취급, 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제재내용이 우선 숫적으로 과다한 편이다. 그리고, 1, 2권에 비해서는 작자명이 비교적 많이 明示되어 있어 보다 出典이 분명하고 책임있는(또는 권위있는) 글이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題材選定에 있어서의 글의 종류는 3, 4권 공히 실용문은 하나도 없고,

운문보다는 산문, 서정적인 것보다는 서사적인 것으로, 그리고 작문과 수사 위주의 내용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小説은 1개 학기에 6개과나 배정되어 있는 데 비해 분량도 적은 詩는 불과 2 또는 3수에 그친 것은 문학장르간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소치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수사도 작문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문법적인 것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작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언어사용기능의 4가지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한 조화도 거의 고려되지 않은 채 쓰기에 해당하는 作文에의 치중은 언어교육의 성공을 의심케 하는 主要原因이 될 위험이 있다.

3. 3學年(第5·6卷)⁵⁾

初中 3學年用 「조선어문」제 5권과 제 6권의 내용 구성은 저학년용 교재에 비해 題材數나 작자명 등에 있어서 비교적 이상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題材의 수가 각 21개과이고 자습과에 해당하는 것과 취급하지 않을 과가 5권에 6+2, 6권에 7+3이나 보충교재 내용으로 6과 7개의 영역별 자료가 보충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제재의 수가 많은 편이나 1,2학년에 비해 어느정도 적절한 편이다. 그리고 1학

註 5) 제 5권(편집책임: 하찬호, 표지: 김서룡): 연변대학인쇄창, 9.25 印張, 191 千字, 1985.7 第 1 版 1989.5 第 3 次 印刷, 第 6 卷(편집책임: 하찬호, 표지: 김서룡): 연변신화인쇄창, 11.375 印張 236 千字 1985.12 第 1 版 1988.12 第 4 次 印刷.

년 교재에 비해서는 각 제재의 필자가 밝혀져 있음은 필진의 구성보다는 필자의 수로 인한 교재상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글의 종류에 대한 영역간의 균형은 여전히 찾을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를 들면, 초급중학교 3학년 1년동안(제5권과 제6권의 내용)소설의 수가 14인데 비해 전기문: 3, 설명문: 4, 시: 6, 수필: 6, 論說文: 8, 희곡: 2, 그리고 보충 교재내용에 해당하는 읽기: 2, 작문: 8, 문학: 1, 기타: 1의 자료(제재)수를 감안하면 역시 불균형(부조화)의 特徵을 면할 수 없다.

제5권과 제6권의 내용 구성을 다음 (5), (6)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 열거할 수 있다.

위에서 이제까지 초급중학교용 「조선어문」제1-6권의 내용을 그 구성체계를 중심으로 학년별로 살펴보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題材의 수와 길이가 많고 길다. 제재의 수는 제1권에서 제6권까지 總 139個科이나 여기에 보충교재내용(작문, 수사, 읽기, 말하기 등) 56개가 가산되면 195개과에 해당하는 셈인데 6권의 총면수 1,946면을 이로써 나눌 경우 평균 1제재(과)의 길이는 약 10면에 해당한다.

둘째, 自習科와 취급하지 않을 科를 目次에 명시해 둔 것은 과도한 題材를 처리하고 제외된 자료를 보충 또는 자습 과제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자습용 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교수방법 또는 교사재

(1) 「조선어문」 제1권의 내용구성

순번	제 재 명	글의 종류	작자명	면 수
1	해와 달	동 화		1- 10 (10)
2	△ 불 로 초	동 화		11- 22 (12)
3	* 에밀레종	설 화		23- 29 (7)
	읽기에서 감정정서살리기	설명문(읽기)		30- 35 (6)
4	어머니를 생각하면	회고담(기서)	윤복진	36- 43 (8)
5	탁월한 언어학자 주시경선생	전기문(기서)		44- 52 (9)
6	불타는 청춘	회고(영웅)담 (기서)		53- 56 (4)
7	* 스승에 대한 생각	회고담(기서)	천세봉	57- 65 (9)
	작문 1 간단한 기서문	(작문)		66- 75 (10)
8	나비와 수탉	동 화		76- 84 (9)
9	* 구렁이와 족제비	동화(우화)		85- 89 (5)
10	* 밤 솟는 독	동 화		90-105 (16)
	말하기의 기본요구	설명문(말하기)		106-114 (9)
11	봄	서경문	주자청	115-119 (5)
12	다 람 쥐	설명문	과 블	120-123 (4)
13	△바다의 왕자	기행문	남궁만	124-134 (11)
	작문 2 관찰과 기록	(작문)		135-148 (14)
14	* 두 일학년생	동화	변희근	149-158 (10)
15	두 소녀	동화		159-168 (10)

순번	제 재 명	글의 종류	작자명	면 수
16	△철 수 단어와 그 뜻	소설 (문법: 어휘론)	강효순	169-178 (10) 179-185 (7)
17	결사전가	시		186-188 (3)
18	△시 2수: 눈내리는소리 내가 만약 물방울이라면	시	김순석 김성휘	189-191 (3)
19	*한해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뜻 같은말과 반대말	시 (문법: 어휘론)	마르샤크	192-198 (7) 199-208 (10)
20	△한방울의 물	수필		209-213 (5)
21	려지꿀	수필		214-221 (8)
22	*티끌모아 태산 작문 3 중심사상과 글감	수필 (작문)		222-226 (5) 227-238 (12)
23	박돌의 죽음	소설	최서해	239-251 (13)
24	마지막 수업	소설	도 데	252-262 (11)
25	* 45분 단어의 뜻빛갈	소설 (문법: 어휘론)	박응호	263-278 (16) 279-286 (8)
26	자랑스러운 우리말과 글	논설문		287-296 (10)
27	* 독서태도 작문 4 간단한 논설문	논설문 (작문)		297-303 (7) 304-313 (10)
부록	<조선말사전>을 어떻게 이용 할 것인가?	설명문		314-323 (10)

(2) 「조선어문」 제 2권의 내용구성

순번	제 재 명	글의 종류	작자명	면 수
1	꽃들이 주고받은 말	동 화	중 복	1-6 (6)
2	△목장의 암오리	동 화		7-21 (15)
3	* 온달과 평강공주	설 화	이갑기	22-41 (20)
	듣기의 기본요구	설명문(듣기)		42-46 (5)
4	사소한 사건	소 설	노 신	47-54 (8)
5	꼬마 감시원	소 설	박춘삼	55-70 (16)
6	* 전차간에서	소 설		71-79 (9)
	작문 1 서술의 순서	(작문)		80-102 (13)
7	* 5월의 숲속에서	수 필		103-108 (6)
8	아버지의 뒷모습	수 필	주자청	109-115 (7)
9	* 녹음속의 꽃밭에서	수 필		116-128 (13)
	단어의 뜻의 크기와 작기	(문법: 어휘론)		129-136 (8)
10	인민영웅들은 영생불멸하리라	설명문	주정방	137-147 (11)
11	천기폐하	설명문	이 린	148-156 (9)
12	* 로보트	설명문		157-162 (6)
	작문 2. 간단한 설명문	(작문)		163-176 (14)
13	시조 3수	시(고시조)		177- (1)
14	* 시골길	시	김 철	178-180 (3)
15	△놓쳐버린 시	시	박아지	181-182 (2)
	어휘의 갈래	(문법: 어휘론)		183-191 (9)

순번	제 재 명	글의 종류	작자명	면 수
16	조그마한 굴등	소 설	빙 심	192-198 (7)
17	약 속	수 필		199-204 (6)
18	* 피맺힌 원수	소 설		205-210 (6)
	작문 3 들은이야기 쓰기	(작문)		211-222 (12)
19	과학을 위하여 헌신하자	논설문	엽영렬	223-227 (5)
20	생각과 일	논설문	호 승	228-233 (6)
21	* <오늘>을 아끼자	논설문	왕통신	234-238 (5)
	성구와 속담	(문법 : 어휘론)		239-245 (7)
22	* 맹 세	소 설	르 반제 레예브	246-256 (11)
23	새로운 우정	소 설		257-273 (17)
24	△새학기	소 설	김덕석	274-293 (20)
	작문 4 감상문	(작문)		294-305 (12)

(3) 「조선어문」 제3권의 내용 구성

순번	제 재 명	글의 종류	작자명	면 수
1	청 산 녹 죽	기행문(산문)	원 응	1-9 (9)
2	*백두산 진달래	수 필	장석환	10-16 (7)
3	△비 걷는 경포대 단어와 표현의 맞물림	수필(기행문) (문법:어휘론)	석가산	17-23 (7) 24-32 (9)
4	사랑스러운 중국	수 필	방지민	33-39 (7)
5	봄과 학생	수 필	석인해	40-46 (7)
6	*벗을 사립에 작문 1 경물수필	수 필 (작문)	이 설	47-53 (7) 54-68 (15)
7	고 향	소 설	노 신	69-87 (19)
8	담 요	소 설	최서해	88-94 (7)
9	*딱한 경우 수사지식 1	소 설 (작문:수사)	에른 아무씨나	95-105 (11) 106-116 (11)
10	감골문으로부터 포켓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설명문	최금태 송광례	117-125 (9) -
11	우주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설명문		126-132 (7)
12	*사막에로의 진군 작문 2 과정설명문	설명문 (작문)	축가정	133-140 (8) 141-153 (13)
13	주총리시여, 어디에 계십니까?	시	가 암	154-157 (4)
14	*영남이	시(서사시)	조기천	158-163 (6)

순번	제 재 명	글의 종류	작자명	면 수
15	*설레지엔 방직공 사랑송에 대하여	시 설명문(읽기)	하이네	164-166 (3) 167-175 (9)
16	비판과 자기비판	논설문	모택동	176-179 (4)
17	셋으로부터 만에 이르기까지	논설문	마남춘	180-185 (6)
18	*교오하면 실패하고야 만다 작문 3 논점과 논거	논설문 (작문)	마철정	186-190 (5) 191-205 (15)
19	나의 선생님	회고담(수필)	신용선	206-223 (18)
20	△ 봉선화 수사지식 2	소 설 (작문: 수사)	김명진	224-241 (18) 242-250 (9)
21	무더위와 소나기에 시달리며	소 설	노 사	251-260 (10)
22	△ 흘러간 마을 작문 4 몇가지 사실로 한 인물의 성격특징을 표현하기	소 설 (작문)	염홍섭	261-282 (22) 283-300 (18)

(4) 「조선어문」 제 4권의 내용 구성

순번	제 재 명	글의 종류	작자명	면 수
1	그는 봄을 가지러 간다	소 설	김수범	1-15 (15)
2	눈 빛	소 설	김용익	16-29 (14)
3	△ 고 임 돌	소 설	이종민	30-48 (19)
	독서토론을 어떻게 진행할것인가	설명문 (말하기)		49-64 (15)
4	* 61명의 계급혁제를 위하여	기서문		65-78 (14)
5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논설문	위 외	79-90 (11)
6	△길이 빛날 증화의 녀	기서문	손무림 대 황	91-105 (15)
	작문 1 사건이 비교적 복잡한 기서문	(작문)		106-122 (17)
7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시	이상화	123-126 (4)
8	* 청산 소나무	시	김태갑	127-131 (5)
	수사지식 3	(작문 : 수사)		132-141 (10)
9	웅위로운 인민대회당	설명문	손세개	142-149 (8)
10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방법	설명문	화자경	150-155 (6)
11	△바다의 빛	설명문	라희명	156-163 (8)
12	* 구름과 날씨	설명문		164-169 (6)
	작문 2. 원리 설명문	(작문)		170-192 (23)
13	아버지의 길을 생각하며	수 필	정동찬	193-197 (5)
14	연못의 달빛	수 필	주자청	198-203 (6)
15	* 봄의 고향	수 필	석인해	204-214 (11)
	산문에 대하여	설명문 (쓰기)		215-228 (14)

순번	제 재 명	글의 종류	작자명	면 수
16	간고분투에 대하여	논설문	서특립	229-236 (8)
17	*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쾌락	논설문	양계초	237-241 (5)
18	* 청년들은 마땅히 과학을 습득 하여야 한다. 작문 3 정면과 반면을 대조시 키는 논증방법	논설문 (작문)	스팔린	242-245 (4) 246-259 (14)
19	성냥 일곱가치	소 설	왕원견	260-266 (7)
20	카멜레온	소 설	체호브	267-274 (8)
21	△토지분쟁사건 수사지식 4	소 설 (작문 : 수사)	이기영	275-298(24) 299-308 (10)
22	* 금강산을 찾아서	기행문	강학태	309-328 (20)
23	장강삼협	기행문	유백우	329-337 (9)
24	* 구 월 산 작문 4 기행문	기행문 (작문)	홍승덕	338-348 (11) 349-361 (13)
부록	독 서 필 기	설명문 (쓰기)		362-364 (3)

(5) 「조선어문」 제5권의 내용 구성

순번	제 재 명	글의 종류	작자명	면 수
1	비 속에서	수 필	조여평	1- 4 (4)
2	백양예찬	수 필	모 순	5- 9 (5)
3	※ 별 들	수 필	김정흠	10-17 (8)
	작문 1 변 론	(작문)		18-29 (12)
4	석별의 정	보도문학(수필)	위 외	30-43 (14)
5	△하늘의 비밀을 탐색하는 젊은이	보도문학(전기문)	유난생	44-60 (17)
6	코페르니쿠스	전기문	축가정	61-68 (8)
7	△신사임당	전기문	문병우	69-79 (11)
	작문 2 조사보고	(작문)		80-93 (14)
8	우리 삼촌 줄	소 설	모파쌍	94-106 (13)
9	공을기	소 설	노 신	107-118 (12)
10	※불타는 랍	소 설	이종렬	119-144(26)
	소설에 대하여	설명문(문학)		145-150 (6)
11	<우방인사의 놀람>을 논함	논설문	노 신	151-157 (7)
12	<우의>이냐, 침략이냐?	논설문	모택동	158-164 (7)
13	※전쟁범죄자의 평화구결을 평함	논설문	모택동	165-172 (8)
	작문 3 논박문	(작문)		173-186 (14)

순번	제 재 명	글의 종류	작자명	면 수
14	초 혼	시	김소월	187-188 (2)
15	나의 조국	시	김상오	189-195 (7)
16	※언덕우에 조용히 서 있는 동무	시	김성휘	196-199 (4)
17	※맑은 하늘	소 설	권강일	200-215 (6)
18	여차장과 청년	소 설	박종모	216-220 (5)
19	※매혹적인 봄밤 작문 4 상상과 허구	소 설 (작문)	오금량	221-225 (5) 226-243 (18)
20	※아 들	희 곡	전호섭	244-269 (26)
21	황 금 산 희곡의 일반지식과 희곡읽기	희 곡 설명문(문학, 읽기)	송 영	270-283 (14) 284-287 (4)
부록	계 약 서	설명문(실용 문)		288-294 (7)

(6) 「조선어문」 제 6권의 내용 구성

순번	제 재 명	글의 종류	작자명	면 수
1	고마운 사람	수 필	권창일	1-8 (8)
2	파도를 두고	수 필	백철수	9-18 (10)
	작문 1. 표달방식의 종합운용	(작문)		19-34 (16)
3	미래를 위한 초소	소 설	정성훈	35-49 (15)
4	매치의 선물	소 설	오 헨리	50-64 (15)
5	△ 폭풍우	소 설	석윤기	65-79 (15)
6	△ 발걸음	소 설	백보흠	80-120 (41)
	신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설명문(읽기)		121-126 (6)
7	승고한 이상	논설문	도 주	127-141 (15)
8	잘가라, 스튜워트여!	논설문	모택동	142-157 (16)
9	* 아름다운것과 추악한것	논설문	황약면	158-162 (5)
	작문 2 종합논증	(작문)		163-173 (11)
10	해연의 노래	시	고리끼	174-176 (3)
11	* 뇌 봉	시	가 암	177-189 (13)
12	* 두만강	시	조기천	190-194 (5)
	도서목록선택과 도서관 이용	설명문		195-200 (6)
13	마지막 연설	논설문	문일다	201-206 (6)

순번	제 재 명	글의 종류	작자명	면 수
14	△민중이여 노하라 작문 3. 응변	논설문 (작문)		207-218 (12) 219-235 (17)
15	결 투	소 설	모파쌍	236-245 (10)
16	*설산의 신비로운 피리	소 설	동은정	246-273 (29)
17	똥똥보와 말라깽이	소 설	채호브	274-282 (9)
18	*메 아 리 문예작품 감상	소 설 설명문(읽기)	백철수	283-300 (18) 301-307 (7)
19	우표의 탄생	설명문		308-312 (5)
20	*꽃은 어찌하여 그렇듯 붉은가	설명문	가조장	313-321 (9)
21	*진 사 작문 4. 분예성 설명문	설명문 (작문)	양 형	322-327 (6) 328-340 (13)
부록	1. 회의 기록	설명문(쓰기)		341-349 (9)
	2. 회의 기요	설명문(쓰기)		350-360 (11)

양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취급하지 않은 과의 분류는 그 취지를 알 수 없다. 취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내용이면 교재편성에서 누락되어야 할 것이고 교수-학습활동상에서 제외될 성질의 것이라면 보충자료로서 부록 또는 副教材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권에 나타나 있는 글자의 총수(210千字+183千字+195千字+239千字+191千字+236千字=1,254千字)를 밝히고 있는데⁶⁾, 이보다는 학년별 또는 각권별 사용된 어휘수나 종류를 명기함이 훨씬 합당하다고 본다. 단순한 사용 글자수는 그 책의 번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또는 명시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네째, 선택원(편성원) 제재의 작자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편인데, 특히 저학년 교재에 더욱 심하다.

다섯째, 제재의 편성은 주로 글의 유형(종류)별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고 각 단원마다 하나씩 보충교재 내용에 해당하는 작문, 어휘, 수사, 말하기, 듣기, 읽기 등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만, 다양한 글의 종류가 예시되어 있지도 않고 또 각 영역간의 균형 또한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註 6) 이러한 예는 中國語文 論著에서 주로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中國語는 글자가 곧 단어이기 때문에 글의 분량으로 단어문자의 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조선어문」의 제재 분포

구 분 글의 종별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계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동 화	7	2					9
설 화	1	1					2
소 설	4	8	6	6	6	8	38
시	3	3	3	2	3	3	17
수 필	3	4	6	3	4	2	22
회 곡					2		2
기 서 문	2			2			4
진 기 문	1				3		4
기 행 문	1		1	3			5
설 명 문	2	3	3	4	1	3	16
논 설 문	2	3	3	4	3	5	20
작 문	4	4	4	4	4	4	24
어 휘	3	3	1				7
수 사			2	2			4
말 하 기	1			1			2
듣 기		1					1
읽 기	1		1			2	4
쓰 기				1			1
문 학					1		1
기 타						1	1
부 록	1			1	1	2	5

위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급중학교의 3년간 6권의 교재(조선어문) 독본 제재와 단원별 보충교재의 내용별 분포가 특수 영역에 편중되어 일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어문」 6권의 내용 가운데 우선 소설부문에 있어서 문학장르적 특징을 제대로 갖춘 제재는 드물지만 동화나 설화까지 소설 영역에 포함시킬 경우 전체 제재 139개과에서 49개과에 해당하는 소설이 차지하고 있어 소설이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반해 희곡은 2개과밖에 없으므로 불과 1%에 미칠 따름이다. 그리고 시와 수필은 17과 22으로 12%와 15.6%를 차지하고 있고 설명문과 論說文은 11과 20으로 11.2%와 14%에 미치고 전기문, 기행문과 회고담과 같은 기서문⁷⁾이 13으로 9%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글의 종별상 題材의 비중은 소설류, 수필시⁸⁾ 그리고 논설과 설명문, 기서문류, 희곡의 순서이나 이들 간의 차이가 너무 크고 또 다른 종류의 글(일기문과 서간문, 평론, 시나리오, 고전, 언어, 문학, 그리고 국문학사 등)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제재의 수는 많으나 체계적이고 다양한 제재의 안배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부족한 내용이 單元別 보충교재에서 보완되어야 하는데 이들 內容도 45개에 해당하는 소단원들이지만 그 내용 구성도 작문이 24로 53

註 7) 기서문이라는 글의 종류는 일종의 서사적 기술문인데 “사람과 사건에 대한 서술을 통하여 작자의 사상감정을 표달하며 독자들에게有益的 계발을 주는 글”(「조선어문」 1: 66)로 정의되고 있다.

8) 단원상 17개과에 해당하는 제재이나 1개과에 불과 2,3수의 시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재상 시의 비중을 이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를 차지하는 데 반해 文學은 1로 2%에 해당하며 어휘에 관한 것이 7로 15%에 해당하나 이 가운데는 작문적인 부분과 어휘의미론적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수사에 관한 것도 4로 8%에 해당하지만 이 수사도 넓은 의미의 작문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작문의 비중이 과대함을 알 수 있다. 문법에 관한 것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언어사용의 4기능에 있어서도 말하기 : 2, 듣기 : 1, 읽기 : 4, 쓰기 : 1 등을 다 합해도 8로 작문을 쓰기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언어(사용)기능 부문은 17%정도에 머물고 있다.

언어사용기능에 관한 자료로 독본 제재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습활동사항에 있어서 이러한 언어기능 신장을 위한 內容(또는 指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충교재 내용상의 과소는 이해가 되나, 작문의 강화에 비해 문법의 도외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재 편성에 있어서 언어기능 신장과 언어지식 습득의 관계, 그리고 이들 상호관계의 비중에 대한 학생발달과정에 따른 안배가 거의 고려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재선정 및 안배에 있어서 지나친 주제 강조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알맞은 또는 도움이 되는 언어기능 신장과 언어지식 습득용 제재가 다양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고려보다는 일정한 한정된 주제 또는 내용의 題材만을 적절히 안배하려고 하니 제한된 題材로써 자연히 조화된 다양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Ⅲ. 題材 選定과 主題

1. 單元과 題材

單元이란 일반적으로 공통된 일정한 내용 또는 주제하의 글의 단위를 뜻하는데, 한편의 글이 단원 즉, 소단원을 이룰 수도 있고 공통된 여러 편의 글이 하나의 단원 즉, 대단원을 구성할 수도 있다.

「조선어문」의 단원 구분은 대체로 글의 내용보다는 글의 種別 중심으로 단원이 나누어져 있다.

「조선어문」 제1권의 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1. ‘해와 달’, 2. ‘불로초’, 3. ‘에밀레종’의 3개과의 題材와 ‘읽기’에 관한 설명문 ‘읽기에서 감정정서살리기’가 합쳐서 1개 單元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들 제재상의 공통성은 글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글의 種別 즉, 동화(또는 설화)로서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동화류 단원 끝에 보충교재로서 설명문 ‘읽기’가 이들 동화류 朗讀에 있어 감정정서살리기의 제재로 附記되어 있다.

그리고 기서문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2단원은 4. ‘어머니를 생각하면’, 5. ‘탁월한 언어학자 주시경선생’, 6. ‘불타는 청춘’, 7. ‘스승에 대한 생각’과 작문1 ‘간단한 기서문’의 제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단원 구성이 同一文 種類의 題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단원끝에 이 종류의 文에 대한 作文 또는 言語技能에 관한 글이 添加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원칙이 다 고수되고 있지는 않다.

「조선어문」제6권의 소설 단원에는 소설 ‘미래를 위한 초소’, ‘매치의 선물’, ‘폭풍우’와 ‘발걸음’의 4개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단원

끝의 보충교재 내용으로는 ‘신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添加되어 있고, 시의 단원인 ‘해연의 노래’ (서정시), ‘뇌봉’ (서사시), ‘두만강’ (서정시)의 독본제재 아래에는 ‘도서목록 선택과 도서관 이용’에 관한 설명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 1권의 서경문인 ‘봄’, 설명문인 ‘다람쥐’, 일종의 기행문인 ‘바다의 왕자’가 하나의 단원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성은 작문 ‘관찰과 기록’이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일종의 보고문으로 간주(또는 분류)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단원 구성의 기준은 제재선택의 특성으로 보아 文種別 중심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에 관한 예를 몇가지 더 들면 다음과 같다. 제 2권의 설명문 단원: 10. ‘인민영웅들은 永生不滅하리라’ (설명문). 11. ‘천기폐하’ (설명문). 12. ‘로봇트’ (설명문)와 작문 2. ‘간단한 설명문’, 시 단원: 13. ‘시조 3수’ (시조), 14. ‘시골길’ (서정시), 15. ‘놓쳐 버린 시’ (서정시)와 ‘어휘의 갈래’, 제 3권의 수필 단원: 4. ‘사랑스러운 중국’ (수필), 5. ‘봄과 학생’ (수필). 6. ‘벗을 사귄데’ (수필)과 作文 1. ‘경물수필’, 설명문 단원: 10. ‘갑골문으로 부터 포켓토 석판에 이르기까지’ (說明文), 12. ‘사막에로의 진군’ (說明文)과 作文 2. ‘과정설명문’, 제 4권의 설명문 단원: 9. ‘웅 위로운 인민대회당’ (설명문). 10.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방법’ (설명문). 11. ‘바다의 빛’ (설명문). 12. ‘구름과 날씨’ (설명문)와 작문 2. ‘원리설명문’, 수필 단원: 13. ‘아버지의 길을 생각하며’ (수필). 14. ‘연꽃의 달빛’ (수필) 15. ‘봄의 고향’ (수필)과 ‘산문에 대하여’, 기행문 단원: 22. ‘금강산을 찾아서’ (기행문). 23. ‘장강삼협’ (기행문) 24. ‘구월산’ (기행문)과 작문 4. ‘기행문’, 그리고 제 5권의 소설 단위: 8. ‘우

리 삼촌 줄' (소설). 9. '공을기' (소설). 10. '불타는 밤' (소설)과 '소설에 대하여', 논설문 단원: 11. '〈우방인사의 놀람〉을 논함' (논설문), 12. '〈우의〉이나, 침략이냐?' (논설문), 13. '전쟁범죄자의 평화구걸을 평함' (논설문)과 작문 3. '논박문', 희곡 단원: 20. '아들' (희곡), 21. '황금산' (희곡)과 '희곡의 일반지식과 희곡 읽기', 제 6권의 소설 단원: 15. '결투' (소설), 16. '설산의 신비로운 피리', 17. '똥똥보와 말라쟁이' (소설). 18. '메아리' (소설)과 '문예작품감상', 그리고 설명문 단원: 19. '우표의 탄생' (설명문). 20. '꽃은 어찌하여 그렇듯 붉은가' (설명문). 21. '진사' (설명문)와 작문 4. '문예성설명문'

2. 題材選定の 範圍

「조선어문」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題材는 거의 대부분 현대문, 현대작품이고 기껏해야 고시조 몇 수와 김소월의 '초혼',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최서해의 '박들의 죽음', '담요' 등이 전통적인 조선문학의 고전에 준하는 셈이고 일부 외국인(파블, 모파쌍, 오헨리, 마르샤크, 르 뻬레예브, 에르 아무씨나, 체호브, 고리끼)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북한과 중국의 현대 작가 또는 필자의 글로 엮여 있다.

「조선어문」의 題材選定에 있어서 그 出典을 밝힌 것을 대상으로 取材의 範圍를 살펴보면, 우선 제 1권에서 27개과 가운데 題材 선택의 出

典이 명시된 것은 22개 과이나 15개 과의 제재가 북한의 자료에서 선재한 것이므로 55% 이상의 題材가 북한의 현대 문헌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 1권의 4. ‘어머니를 생각하며’에 대해서 “조선의 <천리마> 1965년 1월호에서 선재하여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하였다. 작가 윤복진은 조선의 저명한 아동문학작가이다.”(1:36), 5. ‘탁월한 언어학자 주시경선생’에 대해서도 “이 글은 조선의 <아동문학> 1963년 7월호에서 選材하여 부분적으로 삭제하고 수정을 가하였다.”(1:44), 소설 16. ‘철수’에 대해 “이 글은 조선의 중편소설 <분단위원장>에서 발취하여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하였다. 작가 강효순은 조선의 저명한 아동문학작가이다.”(1:169), 그리고, 최서해의 소설, 23. ‘박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조선현대문학선집>에서 선재하여 일부 삭제하였다. 작가 최서해(1901~1932년)는 조선의 저명한 현대작가이다.”(1:239)와 같이 그 출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내 자료에서 취재된 것은 出典이 명시된 것으로는 제 1권 가운데 3개 과뿐이므로 11%에 불과하다. 물론 出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의 대부분이 중국내 또는 在中朝鮮族 자체의 자료에서 발취한 것이겠지만 이를 합해서도 8개로 30%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내 취재 자료에 대한 예로는 6. ‘물타는 청춘’에 대해 “이 글은 <청년영웅전(속편)>에 있는 <구양해>에서 발취하여 수정하였다”(1:53), 그리고 11. ‘봄’에 대해서도 “이 글은 <주자청문집>에서 선재하였다. 작가 주자청(朱自淸)(1893~1948년)의 자는 패현(佩弦)이고 강소성사람이며 현대작가이다”(1:115)와 같이 출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또는 조선)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의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것으로는 12. '다람쥐' : "〈과불선집〉에서 選材하였다. 작가 파블(1707~1788)은 프랑스의 저명한 학자이며 작가이다"(1:20) 19. '한해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의 작가 '마르샤크'에 대해서는 "쏘련의 저명한 현대시인이며 아동문학작가이다"(1:192), 그리고 24. '마지막 수업' : "이 글은 프랑스의 소설가 도데(1840~1897년)가 쓴 단편소설이다"(1:252) 등의 출전 또는 해설을 명시하고 있다.

제2권의 출전 명시 題材는 24개과 가운데 20개과인데 여기서도 북한 자료에서의 선재가 11개과로서 중국내 자료출전의 9개과보다 비중이 45.6%와 37.8%의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제5권의 경우에는 21개과 가운데 북한 출전과 중공 出典의 題材상 비율이 8개과와 11개과로 38%와 52%의 역순이 되고, 제6권의 21개과 가운데서는 각각 8개과로서 38%의 등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저급학년용 교재에는 북한 出典의 題材가 많이 選定되어 있고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북한 출전과 중국 出典의 題材 비율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존의 題材 選定이 너무 높다고 하겠고, 선택된 題材의 내용이 지나치게 현대물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3. 主題와 表現

「조선어문」의 대부분 題材는 일정하게 의도적으로 計劃된 주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범한 소재에서도 지나친 鬭爭的 意味를 부여하고 있는가 하면, 客觀的 내용보다 의도적 주제 제시의 부자연스러움이 발견되기도 한다.

제 1 권에서 제 6 권에 이르기까지의 총 139 개과의 제재를 대상으로 주제를 공통성이 큰 것만 대충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⁹⁾ 가난과 고통 극복 및 인민·대중을 위한 봉사 또는 희생이 14로 10%, 그 다음이 과학 등의 지식에 관한 설명이 13으로 9%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력, 제국주의, 지주 등의 횡포에 항거, 투쟁에 관한 것이 12로 8.6%가 되고 또 공산, 사회주의 혁명정신에 관한 것이 11로 8%가 되기 때문에 이들 3가지의 유사한 주제를 통합하면 무려 26%에 해당하는 절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 밖에도 동지애, 형제애 및 약속 등에 관한 인간성 문제가 13으로 9%를 占有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사회주의 인간형의 가난과 근검성이 10(7%), 여기에다 사회주의 인간형의 조직과 책임 5(3%)를 가하면 사회주의 인간형에 관한 주제는 무려 10%이상이 되고 만다. 그리고, 노동운동과 계급에 관한 것도 별도로 10(7%)이나 되고 항일·반미·

註9) 이러한 主觀的 主題把握과 分類에도 客觀的 分析의 타당성에는 미치지 못하나 어떤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큰 모순이나 무리는 없다고 본다.

· 반국민당 장개석 등도 다시 8(6%)이나 되며, 또 祖國愛가 7(5%) 위인·영웅전이 5(3%)가 되나, 자연예찬은 4(2%), 생각과 일 2(1%), 민족·역사 1(0.7%) 등의 分析으로 미루어 볼 때, 수많은 소설이 선정되어 있었지만 순수문학은 아니라는 것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主題가 의도적으로 사회주의 구현 방안 또는 범위를 거의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주제를 나타내고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된 제재상의 표현을 살펴보면, 주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기 때문에 몇가지 예를 引用해 보기로 한다.

(8)가. “그 순간 나에게는 그 손길이 그 무슨 충격과 함께 가슴에 안겨왔다.(저 어린것들이 나와 춤추고 노래부르는 저 뒤에는 교양원의 남 모르는 努力이 얼마나 스며있을 것인가!)”(6:5)

나. “그대야말로 자기의 초소에서 조국이 준 임무를 遂行하는 성실한 조국의 딸이다. 그대의 눈이 끊임없이 미소할 때 어린것들은 그속에서 조국의 자애로운 미소를 볼 것이며 그대가 아이들을 줄이어 데리고 다니며 <여기가 김일성광장이에요>, <이것은 무궤도전차예요> 하고 가르쳐줄 때 아이들은 그들의 미래 앞에 부여주는 조국의 크나큰 사랑을 알게 될것이다.”(6:6)

(9)가 “《네... 구교인민 학교 교원입니다. 도시에 들로서는 그림으로밖에 볼수 없는것들을 실물을 보여주겠다면서 수업만 끝내면 교외에 나가 산속을 다녔답니다. 날씨도 찬데 어제 내린 비를 산

속에서 맞고 그만 신열이 높아졌습니다》”(6:37).

나. “나의 머리에는 위대한 수령께서 우리 사회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하신 말씀을 이따가 떠올랐다”(6:38).

위의 예 (8)은 「조선어문」 제6권의 수필 “고마운 사람”으로 주제가 교양원의 희생정신이고, (9)는 소설 “미래를 위한 초소”로 주제가 교사의崇高한 봉사정신인데 (8)과 (9)의 주제 부각을 위한 표현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설명적이며 내용 또한 친박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10) “이 위기일발의 찰나에 구양해는 쓴살같이 철길에 뛰어들었다. 비에 흠뻑 젖은 그의 비옷자락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부풀어올랐다. 구양해는 더없이 태연자약하였다. 그는 목숨을 내걸고 말을 힘껏 떠밀었다.

열차는 안전하게 정거하였다. 여객들은 위험에서 벗어났다”(1:54)

(11)가. “선호는 군복 옷주머니에 손을 가져가 단추를 끌었다. 낮익은 씨앗봉지가 나렸다”(3:235)

나. “총성과 함께 선호는 그 애를 안은채 꽃밭에 모로 쓰러졌다. 이것은 태준이가 문을 차고 달려나가는 순간적인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태준은 원수놈들을 뒤쫓아가 풀넝쿨에 기관단총 점발사격을 안기었다. 두놈이 쓰러지는 비명소리가 울렸다.”(3:237)

위의 (10)은 1963.12.18 구양해가 철도상의 말을 구출하고 죽음으로 열차사고를 예방한 희생정신을 '그런 영웅전 '불타는 청춘'의 내용 일부이고, (11)은 전쟁속에서도 후대의 행복한 생활을 염원하는 소설 '봉선화'의 일부이다. 여기서의 봉사, 희생정신의 최고는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12) " 그런데 이때 한 여성의 오돌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나? 그게 바로 그 처녀였네.

<왜들 꾸물거려요? 어서 장수바위쪽으로 몸을 피해요, 어서요...>

피득 나는 그때 그 처녀의 얼굴을 보았네. 입을 앙다물고 적들이 기여오르는 골짜기를 쏘아보는 그의 얼굴은 참으로 무서울만치 사나와졌네. 아니 그 정찬 눈매가 이번에는 서리발처럼 날카로와졌는데 그 눈에서는 퍼런 불길의 번쩍이는게 아니겠나? 난 여태껏 그런 눈빛을 본 일이 없었네. 더구나 것처럼 맑고 그윽하던 그의 두눈에서 말이네. 어쩌면 눈빛이 것처럼 달라질수 있겠나?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일이고 나는 비로소 생각난듯 환자들과 함께 장수바위를 향해 험한 수림속을 치달아올랐네.

그런데 처녀는 우리와는 반대방향으로 달렸네. 그리고 목청껏 이렇게 소리쳤네.

<개놈들아, 어서 따라올테면 따라오라....> (4:24-5)

이 글은 4권의 소설 '눈빛'에 포함된 한 여인의 혁명투쟁 장면을 나타낸 부분이다. 자기 희생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또한 이것이 혁명과업의 큰 수단임

을 보이고 있다.

(13)가. “옷방에서 아직 바작바작 갓난아이를 잡아먹고 있던 범은 능청스럽게 대꾸를 하였다.” (1:4)

나. “바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거기서 누나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어 각각 밤과 낮을 밝혀주는 빛이 되었다” (1:8)

(14) “이 글은 인민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길이 전하여진것인데 해와 달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것을 흥미있게 이야기하면서 음흉하고 포악하기 그지없는 범과 싸우는 어린 오누이의 지혜와 슬기 그리고 승리를 표현하였다.” (1:9)

(15)가. “해공왕은 18 만호나 되는 넓은 서울의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종을 만들기로 계획하였다. … 해공왕은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아 부족한 재료를 채우기로 하고 소위 부처에게 공양드린다는 구실로써 백성된자는 누구나 얼마씩의 財物을 바치라고 명령을 내렸다” (1:23)

나. “그러나 중은 지배자의 위력을 가지고 드디어 어린애를 빼앗아 가고 말았다.

봉덕사에서는 종을 깨뜨려 다시 녹이고 그 쇠불속에 어린애를 집어 넣어 가지고 새로운 큰 종을 만들어 내었다” (1:28)

(16) “신라말기의 통치배들은 불교를 인민들의 思想意識을 마비시키고 봉건통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사상도구로 리용하였고 중놈들은 봉건국가의 비호밑에 도처에 절간을 짓고 불교의 허황한 교리를 퍼뜨렸으며 봉

하여야 할 在中朝鮮族의 國家觀에 대한 또다른 측면이 발견된다.

「조선어문」 6권 가운데 題材의 내용과 출전이 다양하며 작자명이 제일 많이 명시된 책은 제 5권이고 이 책에 선정된 제재가 북한 의존도가 가장 낮은 대신 중국의 출전이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인데, 참고로 이 제 5권의 제재별 주제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비속에서’ (조여평, 수필) : 남을 돕는 마음 찬양, 2. ‘백양예찬’ (모 순, 수필) : 백양나무가 상징하는 북방 농민 민족해방 투쟁정신 찬양, 3. ‘별들’ (김정흠, 수필) : 탄광 노역자들의 업적찬양, 4. ‘석별의 정’ (위 외, 보도문) : 중국 인민전사와 조선 인민과의 우애, 5. ‘하늘의 비밀을 탐색하는 젊은이’ (유난생, 보도문) : 조국애, 6. ‘코페르니쿠스’ (축가정, 전기문) :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지니는 혁명적 의의,
7. ‘신사임당’ (문병우, 전기문) : 어머니상의 귀감인 사임당 칭송, 8. ‘우리 삼촌 줄’ (모파쌍, 소설) : 형제애 매물시키는 금전지향주의 폭로,
9. ‘공을기’ (노 신, 소설) : 사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식자의 생애,
10. ‘불타는 밤’ (이종렬, 소설) : 후방의 부녀자들의 투쟁정신, 11. ‘〈우방인사의 놀람〉을 논함’ (노 신, 논설문) : 국민당정부의 매국적 행위 비난, 12. ‘〈우의〉이나, 침략이냐?’ (모택동, 논설문) : 미국의 침략주의,
13. ‘전쟁범죄자의 평화구걸을 평함’ (모택동, 논설문) : 장개석의 평화논의 논박, 14. ‘초혼’ (김소월, 시) : 조국애, 15. ‘나의 조국’ (김상오, 시) : 조국애, 16. ‘언덕우에 조용히 서있는 동무’ (김성휘, 시) : 동지애,
17. ‘맑은 하늘’ (권강일, 소설) : 어느 전사의 조국애, 18. ‘여차장파

청년' (박종모, 소설) : 여차장을 감동시킨 청년의 정의감, 19. '매혹적인
봄밤' (오금광, 소설) : 이웃간의 협조, 20. '아들' (전호섭, 희곡) : 항일
투쟁정신, 21. '황금산' (송영, 희곡) : 금전지향주의 풍자.

이상 몇가지 주제유형의 예와 제 5권의 제재와 주제의 대비에서, 「조
선어문」의 주제가 사회주의 혁명정신과 (자기)희생정신이 주류를 이루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學習活動의 資料와 方法

1. 自習科問과 取扱하지 않을 科問

이미 앞(1. 學年別 內容體系)에 例示된 바와 같이, 「조선어문」의 各卷에 收錄되어 있는 讀本 題材 가운데는 정규 학과시간에서 제외되는 資料까지 포함되 있다. 이로 인해 各單元의 題材量이 均等하지 못하고 학과의 單元別 學習活動上의 문제가 없지 않을 듯하다. 이블테면, 앞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또는 4개 과로 구성된 각 단원에서 자습과와 취급하지 않을 과를 제외하면 어떤 단원은 동화(‘해와 달’)나 詩(‘결사전가’), 수필(‘여지꿀’), 설명문(‘자랑스러운 우리 말과 글’)처럼 단 하나의 제재로 단원학습이 전개되어야 하는 데 반해, 다른 단원의 경우에는 자습과를 제외하고서도 기서문 3개과(‘어머니를 생각하면’, ‘탁월한 언어학자 주시경선생’, ‘불타는 청춘’)나 小說 두 편(‘박돌의 죽음’, ‘마지막수업’)이 대등한 하나의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자습용 제재의 분리는 학습상 필요한 일이지만 취급하지 않을 제재의 명시는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단원별 제재의 수나 내용상 難易度에 따라 자습과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단원에 대한 고려없이 전체적으로 몇 편의 제재를 자습과 불취급의 資料로 할당한 것은 再考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조선어문」 제1권에서 제6권까지의 題材 가운데 학습 대상 또는 活

動에서 제외되는 것은 自習科가 $(9 + 9 + 7 + 8 + 6 + 7 =)$ 46 개 과이고
 취급하지 않을 科가 $(5 + 3 + 3 + 4 + 2 + 3 =)$ 20 개 과이므로 각 권의
 실질적인 강독교수(또는 학습)의 대상 제재는 $(27 - 14) + (24 - 12)$
 $+ (22 - 10) + (24 - 12) + (21 - 8) + (21 - 10) = 13 + 12 + 12 + 12$
 $13 + 11 = 73$ 개 과가 된다.

3.2 제시와 연습

各科의 해당 題材 다음에는 반드시 연습(연습문제)이나 제시(문제 제
 기 또는 해설)가 있다. 그런데, 이들 연습의 다양한 학습사항에 관한
 문제와 제시의 적절한 문제제기 및 해설은 학습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
 리라는 데는 의심이나 再論의 여지가 없다. 본문의 내용에 비해서는 오
 히려 연습문제가 훨씬 조직적으로 檢討되고 언어기능이나 응용력을 伸張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된 듯하다. 이로써 교재의 구성과 題材
 選定상의 문제(미비)는 이러한 문제와 자습제시가 어느 정도 보완하여
 주는 셈이다.

학교에서의 학습 대상 제재에 대해서는 주로 ‘연습’이 附記되어 있
 고 정규시간에서 제외된 자습 또는 불취급 제재의 끝에는 ‘자습제시’
 또는 ‘연습’이 명기되어 있다.

(20) ‘탁월한 언어학자 주시경선생’의 연습

1. 이 글은 주시경선생의 生涯와 業績을 쓴 글이다. 첫자연단락에
 서 주시경선생에 대한 총적평가를 쓰고 마지막자연단락에서 그의 위대한

업적들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썼다. 이렇게 한것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2. 이 글에서는 조선말과 글을 사랑하고 그것을 깊이 연구하는데서 주시경선생의 애국자, 언어학자로서의 풍모가 여실히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왜 이 글의 작자는 달래이야기를 그토록 상세히 썼겠는가?

3. 다음의 단어들로 짚막한 글을 쓰라.

남달리, 더불어, 오죽, 심혈, 오로지.

4. 다음의 문장에서 괄호안의 단어가 있기와 없기가 어떻게 다른가를 음미해보라.

① 주시경선생은 조선인민이 낳은(열렬한) 애국자이며 (탁월한) 언어학자 입니다.

② 선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회색무명두루마기에 짚신을 신고 책과 원고뭉치를 짚 파란 보자기를 옆에 끼고 다니었습니다.

③ 선생은 (항상) 쇠퇴해가는 조국을 (이렇게도) 걱정하면서 전체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잠을 깬 맹호같이) 일떠설것을 바라면서 愛國主義思想을 고취했습니다.

5. 이 글의 내용을 자기 말로 상세하게 이야기하라.

(21) ‘스승에 대한 생각’의 자습제시

이 글은 조선의 저명한 현대작가 천세봉선생이 일본제국주의의 植民地 統治 밑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 <인간의 진리를 가르쳐주었고 굶하지 않는 정신으로 그 길로 나아가도록 채찍질해준> 자기의 스승을 회억하고 칭송한 글이다……

이 글의 자습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깨쳐야 한다.

1. 이 글에서 작자는 리창엽선생의 몇가지 사실을 썼는가? 매 사실은 리선생의 어떤 정신면모를 보여주는가?

2. 첫번째 사실 (일제놈들이 조선학생의 이름도 조선말로 부르지 못하게 한 이 사실)을 보고 어떤 느낌이 있는가?

3. 일본놈 교장이 리선생의 뒤를 따라들어왔을 때 리선생은 〈얼굴 빛이 사뭇 창백해져서 분명 경련하는 손으로 출석부책장을 넘기었다〉 이것은 리선생의 두려워하는 심리를 표현한 것이겠는가, 아니면 왜놈들에 대한 지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겠는가? 그후의 사실들과 연계시켜 생각해 보라.

4. 다음의 구절들의 함의를 분석하라.

① 한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스승의 가르침, 아니 스승의 인격자체는 그의 자라나고있는 정신생활에 부여하는 피방울과 같은 것이다.

② 나는 마음이 괴로웠다. 부모를 잃은것 같이 서러웠다. 학교가 온통 싸늘해진것 같고 글을 읽는것도 흥미가 없었다.

위의 (20)은 「조선어문」 제1권의 전기문 ‘탁월한 언어학자 주시경 선생’에 대한 연습문제(‘연습’)이고 (21)은 제1권의 회상문 ‘스승에 대한 생각’이 자습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연습’ 대신에 ‘자습제시’가 부가되어 있음을 보인 것이다.

(20)과 (21)의 차이는 (21)에 전체적인 해설이 있는 것 외에는 문제(연습) 내용과 유형은 유사하다. 글의 내용을 완전히 分析, 理解한 경우에 비로소 답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이러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학습 또는 지습을 展開해 나가야 함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들 문제에는 題材 本문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구체적인 어휘와 표현에 대한 理解와 應用은 물론 언어사용기능 신장까지 고려된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이 특징적 장점이다.

취급하지 않을 科에 해당하는 수필 ‘한방울의 물’ (1卷 20 科)에 대한 ‘연습’의 내용을 引用, 열거하면, 문제의 다양성과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2) 련 습

1. 이 글을 단락으로 나눈 다음 이 글의 중심사상을 要約해서 말하여 보라.

2. 이 글에 나오는 박지원선생의 말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이 글에 나오는 <소중한 저울>, <귀중한 부름>, <약수>, <생명수>란 무슨 뜻인가?

4. 다음의 문장에서 밑점이 찍힌 토들의 뜻을 말하고 단문을 지으라.

① 치수를 하지 않던 세상에서 살았으니 그런 환난을 당했던 것이다.

② 작은 불줄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豐年農事를 위해 쓰이는 <생명수>라고 여길 때 농민들은 바빠 논뚝을 손질하게 된다.

③ 당의 고마움을 마음속깊이 느끼고 있는데서 우러나오는 소행인 것이다.

④ 그것을 利用하면 큰 利得이 있지만 利用하지 않으면 害를 입

는다.

5. 다음 단어들의 뜻의 다른 점을 말하고 단문을 지으라.

귀중하다	수습하다	교 혼	요긴하다
재 난	풍요하다	원망하다	

6. <풍요한 전야를 가로세로 누비며 뺨어나간 관개수로>의 밑점 찍은 표현과 <관개수로가 그불처럼 전야를 뒤덮고>의 밑점 찍은 표현의 뜻은 같다. 그런데 왜 이처럼 다른 표현을 썼겠는가?

위의 연습문제 (22)는 8개의 문제 가운데 6개 문제만 例示되고 있는데도 문제의 수가 많고 다양성을 띠고 있다. 우선, 문제 1에서는 단락구분, 주제 파악, 그리고 '말하기'와 관련, 2에서는 문맥과 인용문의 이해, 3에서는 어구의 문맥적 해석, 4에서는 문법과 작문, 5에서는 어휘력과 작문력, 그리고 6에서는 표현력 신장을 도모하는 문제들이다.

제시와 연습이 効率的으로 活用되는 領域은 작문에서라고 할 수 있다. 「조선어문」 제 1권 작문 2 '관찰과 기록' (pp.135-148)의 구성은 관찰과 기록에 관한 설명문이 있고 학생작품의 예문 3편(1. '외사촌 동생', 2. '무더기비', 3. '백열전')이 소개되어 있는데 각 예문별 해설인 제시가 각 예문마다 부가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연습으로서의 작문과제가 주어져 있다.

(23) 련 습

작문범위 :

교정의 한 모퉁이를 관찰하고 쓰기

요 구 :

1. 교정의 한 모퉁이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특징을 포착해야 한다.
2. 관찰의 순서가 정연해야 하며 글에 똑똑히 나타나야 한다.
3. 생동하고 현상적인 언어로 교정의 한 모퉁이의 특징을 그려내야 한다.

위 작문의 과정에 있어서 “설명 및 이해→事例 檢討(解説)→작문”의 순서를 지키면서 ‘제시’와 ‘연습’을 최대한으로 活用하고 있다.

이제까지 제시와 연습에 관한 예는 「조선어문」 제1권에 국한, 인용하였으니, 다음에는 제6권의 내용을 참고하여 몇가지 예를 좀더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24) ‘퇴봉’ (가암, 시)의 자습제시

1. 이 글은 위대한 공산주의전사 퇴봉동지를 만강의 열정으로 노래한 한편의 서정서사시이다. …… 일반적으로 서정서사시는 편목상에서 서정시보다는 크며 서사시보다는 작다. 서정서사시의 이 특징을 단단히 틀어쥐고 이 시의 시적특점을 개괄해보라.

2. 이 서정서사시는 세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에 담겨진 사상내용을 간단하게 써보라.

3. 이 서정서사시의 제2장을 여러번 읊어본 뒤 <퇴봉이야기>에서

퇴봉의 유년시절을 서술한 부분과 대비해 보면서 시와 산문의 구별을 말해보라.

4. 다음 시련의 내용과 수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라. (略)

(25) ‘파도를 두고’ (백철수, 수필)의 연습.

1. 이 글을 몇개의 단락으로 나눌수 있는가? 글의 주제사상은 무엇인가?

2. 작자는 무엇때문에 자기가 산골태생이라는 것과 바다와 파도에 대한 자기의 지식을 서술하였겠는가? 이것은 글의 중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작자는 파도를 묘사함에 있어서 파도의 어떤 특징들을 틀어쥐었는가? 어떤 手法으로 묘사하였는가? 파도를 묘사한 부분들을 찾고 분석하라.

4. 작자는 파도로부터 소설의 技法을 연상하였는데 앞뒤를 어떻게 연계하였는가? 연상부분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가?

5. 작자는 파도를 묘사함에 있어서 자신의 느낌을 결부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전적으로 객관에 서서 묘사한다면 글의 흐름과 중심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6. 다음의 단어들을 넣고 짧은 글을 지으라.

동경, 유연하다, 늘차다, 완만하다, 심혼

7. 아래에 단일문으로 엮어진것, 확대문으로 엮어진것 세가지가 있다. 반복적으로 읽고 표현효과상에서 어떤 우열이 있는가를 말하라. (以下 略)

위의 (24), (25)의 ‘자습제시’나 ‘연습’의 문제는 앞의 저급학년 문

제와는 달리 세분되고 전문적인 깊이를 더하고 있다. (24)의 서정서사시와 (25)의 파도변화와 소설기법에 관한 다양한 검토에서 이루어진 문제이나, 중학교 교재상의 문제로서의 타당성 여부는 재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풀이가 作品理解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단순한 의문이 해결되어야 한다.

독본 교재의 內容과 學習活動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수 및 학습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단원이나 제재의 설정 또는 선정에서부터 言語機能과 言語知識을 위한 목표자료가 區分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달성에 대한 확인, 평가를 위한 연습문제나 자습과제가 부과되어야 함이 이상적인데, 本 教材에서는 독본 자료는 일정한 주제를 가진 題材를 文 種類만 區分되게 열거되어 있고 연습문제나 자습제시에서 학습(또는 자습)활동의 다양성과 언어기능별 훈련을 요구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연히 문항수가 과다하고 내용도 복잡함을 금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교재 편성과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재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V. 技能伸張과 內容上的 妥當性 檢討

1. 技能과 領域間的 關係

言語教育 특히 民族語(또는 母國語)教育의 窮極的 目標은 人間의 言語와 思考의 關係에 있어서 表現과 理解의 精神技能을 伸張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一定的 主題나 內容을 主입시키기 위한 理念教育의 道具로서 言語教育의 活用은 언어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成長期의 發達過程에 있는 中學生들은 思考力이 完全하지 못하고 判斷力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思想的 理念教育보다는 言語教育이 더 絶對히 필요하다.¹⁰⁾ 따라서 中학교 언어(국어 또는 민족어)교과서에 선정, 수록될 제는 반드시 언어교육의 本 領域을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言語教育은 言語使用(또는 活動)技能 伸張과 言語知識 習得으로 나눌 수 있는데, 言語使用技能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있고 言語知識은 다시 言語學 지식과 文學 지식으로 하위구분되기 때문에 言語教育의 領域은 6가지로 細分된다고 하겠다.¹¹⁾ 그런데 이들 6

註 10) 이광호(1986:41)에서도 “국어교육에 있어서의 理念教育의 本 問題는 國語교육의 本 領域인 ‘말하기·듣기·읽기·쓰기’등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 뒤의 本 問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理念教育은 價値觀, 道德性의 本 問題이지만 言語教育은 言語使用能力, 思考力에 관한 本 問題이므로 엄격히 區分되어야 한다.

11) 언어사용기능을 단순히 表現·이해로 本 本을 수도 있고, 언어와 本 本을 전혀 本 本의 것으로 本 本하기도 한다.

한국의 本 本 國語교과서 本 本의 本 本방향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本 本의 本 本으로 本 本하고 있다.

영역은 각각 고유한 기능이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등한 중요성을 지니며 또한 언어활동상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어느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우선하다거나 또는 덜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學習 또는 教授를 위한 體系化된 教材集인 教科書에는 이러한 영역별 적절한 題材가 선정,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어떤 教材 즉, 題材나 教授, 學習의 대상으로 하여 영역별 이 6가지 학습활동을 다 전개(또는 시도)할 수는 있겠으나 그 學習効果는 결코 기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題材나 이러한 諸領域이 다 관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들 영역에 다 합당한 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題材나 그 題材의 특성이나 내용과 언어교육상 가장 관련성이 깊은 영역에 관한 학습이 효율적이므로 적절한 영역 중심의 학습이 주로 전개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영역별 학습에 필요한 적절한 제재가 선정되어야 한다.

「조선어문」의 내용구성은 이미 앞의 1, 2章에서 살펴본 것처럼, 讀本 위주의 제재와 보충단원(즉, 보충교재)의 작문 강화의 교과서 내용 편성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교재 편성은 言語教育의 최고 역점을 ‘읽기’(讀解)와 ‘쓰기’(作文)에 두고 있는 결과적 소치라 하겠다.

교재 편성에 있어서 單元 설정이나 분류는 언어교육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체계적인 題材의 분류와 學習活動과의 관계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單元도 공통된 하나의 중심문제

를 단위로 한 조직적인 교재인 이상,¹²⁾ 教材單元の 경우 題材의 集合을 뜻하나 여기에는 반드시 공통된 내용, 즉 主題가 있어야 한다.

몇 종류의 한국어 교재(중학교 1학년용)를 대상으로 言語使用技能 부문과 言語教育 영역을 비롯하여, 글의 중별상 영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선어문」 1, 2권을 재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조선어문」의 內容構成에 있어서, ‘말하기’기능에 관한 단원은 없고 제제 단위로 선택되어 있는 정도인데 그것도 보조단원의 제제로 되어 있는 설명문 ‘말하기의 기본요구’(제 1권: 106-114), ‘독서토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제 4권: 49-64)가 있고, ‘듣기’에 관한 것으로는 보조단원의 설명문 ‘듣기의 기본요구’(제 2권: 42-46) 하나뿐이고, ‘읽기’에 관한 것으로는 ‘읽기에서 감정정서살리기’(제 1권: 30-35)와 ‘사랑송에 대하여’(제 3권: 167-175)의 설명문·두편이 있고, ‘쓰기’에 관한 것으로는 설명문 ‘산문에 대하여’(제 4권: 215 - 228)가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제제 선택에 있어서나 교재내용 구성에 있어서 언어기능(활동기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본교재의 모든 제제가 다 ‘읽기’ 위주의 자료이기 때문에 ‘읽기’기능에 대한 배려가 최우선적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보조단원의 작문이 매권 4개의 단원이 할당되어 총 24 단원을 이루고

註 12) 學習活動의 편의를 위해 공통된 하나의 주제 또는 중심문제를 단위로 하여 조직한 教材를 單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만 학습 활동의 역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教材單元, 生活單元, 教科單元 등의 구분이 가능하다.

또 각단원별 내용도 설명, 예문과 제시, 그리고 연습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쓰기’기능에 대한 종합적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해’면에서는 ‘읽기’를, ‘표현’면에서는 ‘쓰기’만이 강조되고 있음이 입증되고, ‘말하기’와 ‘듣기’에 관한 기능신장은 소홀히 취급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사용기능별 영역간의 불균형이나 부족 기능에 대한 보완책은 자연 학습활동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學習活動의 결과가 반영되는 ‘연습’에 있어서도 “이 글의 내용을 자기 말로 상세히 이야기하라”(1:22,52), “〈읽기에서 감정정서 살리기〉의 기본요구에 좇아 이 글을 낭독하라”(1:56), “선생님께서 다른 한 동화를 듣고 그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라”(1:84), “이 가요의 이러한 특점에 주의를 돌리면서 이 가요를 암송하라”(1:188), “끊기와 감정정서살리기에 주의하면서 이 시 2수를 읊어보라”(1:191) 등의 일반적이고 어느정도 추상적인 ‘말하기’의 훈련 외에는 대부분 독해와 작문의 연습문제를 고려하면 중학교 언어사용기능교육에 적잖은 문제점이 내포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언어사용기능 신장을 위한 제재는 文學領域(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보다 비문학영역(설명문, 논설문, 실용문)이 더 적절한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논리의 타당성이나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문학작품보다 논설문이나 설명문이 더 적절한 예가 많기 때문이다. 「조선어문」6권에 걸친 139개 題材(정규단원내) 가운데 90여편의 문학작품은 전체 제재의 64.5%를 占有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언어기능 신

장을 위한 제재가 합당하지 않다고 하겠다.¹³⁾

한편, 남·북한의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내용을 참고하면, 중국의 「조선어문」 내용과는 좋은 대조 또는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남한의 現行 중학교 「국어」(1989), 1-1과 1-2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1의 17개 단원과 1-2의 15개 단원은 言語使用技能과 言語知識(또는 言語와 文學)의 領域別, 그리고 또한 主題別로 설정되어 있다.

1-1의 內容目次만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1. 소개하기(말하기/듣기) : (1) 자기 소개, (2) 친구, 가족 소개, (3) 우리 학교 소개
2. 읽는 즐거움(읽기) : (1) 현이의 연극, (2) 약손
3. 좋은 글을 쓰려면(쓰기)
4. 단어의 갈래(언어) : (1) 명사, 대명사, 수사, (2) 조사, (3) 동사, 형용사, (4) 관형사, 부사, (5) 감탄사, 5. 시와 운율(문학) : (1) 엄마야 누나야, (2) 시 조, (3)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4) 물새알 산새알, (5) 풀 잎, (6) 해바라기, 6. 주제와 소재(읽기) : (1) 제 잘못, (2) 일회용 시대, (3) 짚신짝 하나, 7. 정확한 말(말하기/듣기) : (1) 묘사하기, (2) 안내하기, (3) 정확한 발음, 8. 글감찾기(쓰기), 9. 문장의 짜임(언어) : (1) 주어와 서술어, (2) 목적어와 보어, (3) 관형어와 부사어, (4) 독립어, (5) 문장의 짜임, 10. 소설의 세계(문학) : (1) 理解의 선물, (2) 공양미 삼백석, (3) 요람기, 11. 문학 이야기(문학) : (1) 문학이란 무엇인가, 12. 글의 짜임(읽기) : (1) 端午, (2) 우리의 미래, 13.

註 13) 앞의 「조선어문」의 제재 분포'(표 7)) 참조.

자연스러운 대화(말하기/듣기) : (1)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2) 대화하기, (3) 메모 보며 말하기, 14. 주제 정하기(쓰기), 15. 요약하며 읽기(읽기) : (1) 언어에 대하여, 16. 생활과 수필(문학) : (1) 삶의 광택, (2) 아버지의 뒷모습, 17. 단어 공부(읽기) : (1) 제주도 기행

위의 例示에서, 17개 단원중 ‘말하기/듣기’가 3개 單元 9개 題材, ‘읽기’가 5개 단원, 9개 제재, ‘쓰기’가 3개 단원 3개 제재, ‘언어’가 2개 단원 10개 제재, ‘문학’이 4개 단원 12개 제재의 구성에서 각 영역별 균형을 발견할 수 있다.

1-2의 15個 單元 가운데는 ‘말하기/듣기’가 2개, ‘읽기’가 4개, ‘쓰기’가 3개, ‘언어’와 ‘문학’이 각각 2개, 4개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중학교 국어」 1학년용 전체 교재에서는 ‘말하기/듣기’에 관한 것이 5개 단원으로 32개 단원에서 15%, ‘읽기’에 관한 것이 9개 단원 28%, ‘쓰기’에 관한 것은 6개 단원 18%, 그리고 ‘언어’에 관한 것은 4개 단원 12.5%, ‘문학’에 관한 것은 8개 단원 25%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의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단원 설정 및 제재 선정에 있어서는 언어교육에 관한 理論과 方法이 비교적 많이 고려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언어교육에 있어서 각 기능 또는 영역이 학습활동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작용 또는 存在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지도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북한의 「국어 중급 1」(1983, 1984)¹⁴⁾의 내용: 1. 자랑스러운 우리말, 2. 중학생이 된 기쁨, 3. 체인과 토, 4. 어느날 저녁, 5. 아버지의 얼굴, 6. 관찰과 글감고르기, 7. 클락새가 날아든다, 8. 야영소에서 보내온 편지, 9. 장수봉에 오른 용사, 10. 경찰이의 일기, 11. 조선학생된 영예를 간진하겠습니다. 12. 토론을 어떻게 할것인가, 13. 봉선화, 14. 바로 읽기, 15. '박연폭포를 찾아서', 16. 글의 제목을 바로 달아야 한다, 17. 은희에게 행복을!, 18. 담요, 19. 설죽화, 20. 사전을 보는 방법, 21. 아버님께서 지워주신 나무단, 22. 해빛, 23. 읽기의 속도, 24. 한마음.

위의 題材에서 言語教育上 領域을 분명히 구분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말하기/듣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토론을 어떻게 할것인가', '읽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읽기'와 '읽기의 속도'가 두드러지고, '쓰기'에 관한 것으로는 '관찰과 글감고르기', '언어'에 관한 것은 '체인과 토'가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제재이고 그 밖의 다수 題材는 다 '읽기'와 '문학'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상의 간단한 교재 구성상의 제재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중학교 국어교과서와 대비해 볼 때, 중국 조선족의 「조선어문」의 내용이 가장 비언어교육적 구성을 띠고 그 다음이 북한의 교재, 그리고 남한의 중학 국어가 언어사용기능을 비롯한 제영역간의 균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

註 14) 북한의 교과서와 체제가 동일한 일본의 조총련계 국어교과서를 대상으로 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 편찬, 東京: 학우서방 간행, 1983 初版, 1984 再版.

는 셈이다.

2. 敎材內容의 適切性和 連繫性

韓國語 敎科書가 言語敎育을 위한 敎材로서 內容上 適切한가, 그리고 上下 또는 前後關係에 있어서도 內容에 있어서나 程度에 있어서 關聯性 또는 連繫性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言語敎育의 成敗 또는 可能與否를 左右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중학교 「국어」1-1과 1-2의 ‘말하기/듣기’ 단원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비교적 합당한 연계성이 발견된다. 1-1의 ‘소개하기’ 단원의 제재 (1) 자기 소개, (2) 친구, 가족 소개, (3) 우리 학교 소개), ‘정확한 말’ 단원의 제재 (1) 묘사하기, (2) 안내하기, (3) 정확한 발음), ‘자연스러운 대화’ 단원의 제재 (1)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와 1-2의 ‘전달과 주장’ 단원의 제재 (1) 내용 마련하기, (2) 사실 전달하기, (3) 의견 주장하기), ‘이야기 만들기’ 단원의 제재 (1) 내용 구성하기, (2) 공동으로 이야기 완성하기, (3) 듣고 평가하기) 사이에는 공통적인 특성과 개별적인 정도성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¹⁵⁾

註 15) 단원별 차이나 연계성 뿐만 아니라, 학년간의 내용적 관련성과 정도상 차이도 추출될 수 있겠으나 新敎科書(제 5차 교육과정에 의한)의 刊行이 年次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에 대한 分析은 시도할 수가 없으므로 後稿를 요한다.

그리고, 1-1의 '소개하기'단원에는 각 제재별 '학습활동'이 있는데 이를테면, (1) '자기소개' 다음의 '학습활동'으로 "다음 예문을 참고하여 학급 친구들에게 자기를 소개해 보자", "듣는 사람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며 들어 보자", "처음 뵈게 된 선생님께 자기를 소개해 보자"(1-1:3)와 같은 학습문제(사항)가 제시되어 있고, 이들 제재와 학습활동 끝에는 단원의 마무리로 종합적이고 다양한 문제가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단원별 길잡이 제재와 학습활동 과제, 그리고 단원의 종합정리가 내용상 적절성을 유지하면서 동일 영역의 단원과 유기적인 관련성과 정도상의 연계(또는 단계)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北韓의 「국어」중급 1~3간의 내용구성상의 연계성은 비교적 엄격히 유지되고 있으나 정도상의 단계적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은 듯하다. 특히 여기서는 교재 내용구성에 있어서 전혀 단원 설정(또는 분류)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제재의 유형별, 내용별 나열로 1, 2, 3권간의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다.

제1권의 설명문 '자랑스러운 우리말'위치에 제2권의 '자랑스러운 우리글', 제3권의 '언어와 우리 생활'이 선정되어 있고, 문법(즉, '언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1권의 '체언과 토', 제2권의 '용언과 토', 제3권의 '문장성분과 그 자리', 作文의 '관찰과 글감고르기'(제1권), '글의 체계 세우기'(제2권)와 '글다듬기'(제3권), 읽기에 관한 것으로 '바로 읽기'(제1권), '읽기의 속도'(제1권)와 '읽을 때의 끊기'(제2권), 그리고 남한 비방의 내용으로 '봉선화 - 광주소년들이 부른 노래 -'(제1권), '광주는 살아있다'(제2권)와 '준엄한 심판'(제3권) 등에 이르기까지 학년별 각종 제재는 영역이

나 내용상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나, 언어교육적 측면이나 어떤 정도성의 上下關係는 뚜렷하지 않다.

각 제제별 내용상 적절성은 언어교육 특히 언어기능신장의 측면보다는 思想的 理念 우선의 주제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제제 내용에 김일성 교시가 포함되어 있음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면, 제1권의 설명문 ‘자랑스러운 우리 말’에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실 우리 조선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 우리 말은 예의범절을 똑똑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산주의도덕교양에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말은 발음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과 글로써는 東西洋의 어떤 나라말의 발음이든지 거의 마음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p.5)가 전제되어 우리 말의 우수성이 설명되고, 또 ‘중학생이 된 기쁨’(제1권)에도 “《옷을 깨끗이 입어라, 아버지 원수님의 참된 아들이 되자면 옷차림도 언제나 단정해야 한다》”(p.13), “꽃단장을 한 학교정면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 있었습니다”(p.14), “교장선생님은 먼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께서 ……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셨다고 감명깊게 이야기 하셨습니다”(p.15), “나는 마음속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p.16) 등의 표현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 밖에 詩나 小說에 있어서도 “… 어둔 밤을 모르시는 원수님의 학습 구절마다 힘이 솟는 당당한 글소리 대동강도 따라와며 주알주알 흘렸어요”(제1권, ‘어느날 저녁’의 제7연), “철메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서울에서 미제놈에게 학살되었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영원히 잊

지 않고 계시는 아버지 !...! (혁명을 위해서 철매가 소용될 때 어디라도 불러주십시오. 저는 서슴없이 달려가겠습니다).”(제1권 : 32-43) 등의 예로써도 대부분의 글이 김일성 찬양의 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題材 다음에는 다양한 ‘련습’ 과제가 있어서, 언어기능 신장의 훈련은 이러한 연습문제를 통해 보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제1권의 詩, ‘어느날 저녁’(pp.26-28) 다음에 ‘문장발음과 높낮이선’(pp.28-29)이라는 발음에 관한 설명이 있고 ‘련습’(pp. 29-30)의 여러가지 문제¹⁶⁾로 언어활동기능신장과 학습활동 및 평가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다.

위의 남·북한 교재 내용의 구성과 학습활동이나 연습문제의 대비적 예시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조선어문」내용은 제재의 배열이 비록 단원별로 나누어져 있으나 영역간의 조화도 언어기능신장의 자료로도 합당한 편이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특히 교과서 構成體制에 있어서 단원 설정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고 북한의 교재 참조에도 불구하고 각급학년별 제재상의 연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註16) 1. 다음 말들의 길이마루를 살려 읽으시오. 2. 아래의 시구를 소리마루와 끊기를 바로 잡으면서 살려 읊으시오. 3.다음 문장에서 높낮이선이 어떻게 되는가를 화살표로 표시하십시오. 4.이 동시를 외워 읊으시오. 5.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6. 다음 문장에서 밑줄을 그은 단어들을 높여서 발음하고 그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말하십시오. 7. 다음 말의 뜻반대말을 찾으시오. 8. 다음 단어를 넣어 문장을 하나씩 지으시오. 9. 지난날의 만경대 저녁풍경을 생동하게 묘사한 구절을 학습장에 써 보시오.

VI. 教科書上的 問題點과 效率的인 改善方案

1. 諸 問 題

民族語 教科書도 母國語 教科書인 이상, 言語能力伸張을 위한 言語教育 用 教材가 되어야 한다. 現行 中國朝鮮族 初級中學校用 「조선어문」이 지니고 있는 교과서로서의 문제점은 理念教育用 教材이나, 言語 특히 母國語 教育用 教材이나 하는 선택상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는 그 目標와 方向이 다르기 때문이다. 言語教育用 教科書가 되기 위해서는 言語使用技能 伸張이 중시되고 諸領域間的 均衡과 관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기능별 언어능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과서 편성에 있어서 題材의 수가 많은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으나 어느 특수 技能에만 편중된 과도한 제재는 계획적이고 效率的인 學習活動을 도모할 수 없고 오히려 변칙적인 學習展開의 위험만 내포하게 된다. 결국 교재 내용구성에 있어서 題材가 다양하지 못하고 영역별 자료가 고루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올바른 言語教育의 效率性을 높일 수 없고 치우친 자료로 인해 讀解와 作文의 비중이 너무 높다. 그리고 자습과의 활용은 비교적 합당하나 자습과와 불취급과의 불균형으로 단위 설정의 의의가 없다.

題材 內容의 表現에 있어서 특정 主題(社會主義 革命, 階級鬭爭, 反美 抗日 등)강화를 위한 과격한 敵對表現의 卑語使用은 教育的 側面에서 용납될 수 없는 요소이다. 특히 作文을 통한 表現 외에 修辭와 語彙力을 重視하면서 천박한 表現까지 許用함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교양인 양성

에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미제놈, 이년 / 요년, 주둥아지, 중놈, 미국놈들의 야수적 만행, 지주놈, 쳐눅히다, 까뵈히다, 발기발기 찢어놓을테다 원쑤놈” 등의 사용으로 革命的 투지나 용감성이 강화되기보다는 천박성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民族의 同質性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同一 言語가 使用되어야 하는데, 南·北韓은 물론 中國 朝鮮族과도 언제나 같은 표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말들이 있다. 단순한 方言的 差異를 넘어선 예 [마을돌이, 사돈보기, 일떠서다, 레루, 하이야, 강철포가, 혼뜨짐, 슴배여있다. 알심들이다. 원쑤, 알락나비, 한뽕(가랑), 닭알침, 남잡이, 아글타글, 옆음값음, 굶뜨다, 교양원, 가떡질, 여간만, 이발, 가장귀, 새된 소리, 여간만, 곱등어, 묘준하다. 인차, 햇내기, 짹짹히, 아바이, 타산하다, 늦어내지, 영예군인, 불아가리, 일퀴세우다, 노르무레하다, 방조로, 혼곤히, 눈무지, 사위, 녀름, 글밭, 여묵하면, 혼전만전, 논판, 따끔해나는 바람에 앵돌아지다, 마사 놓다, 손기척, 야수한 마음, 자랑차다. 지상공문”(제 1권에 발췌)]가 해결되어야 한다.

연습문제(자세제시 포함)로 기형적인 언어(모국어)학습 활동과 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나 과도한 훈련(연습)은 오히려 학습 효과와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연습’의 의존도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원과 보조단원 제재내용간의 관련성은 상보적인 위치에서 유지되어야 하나 作文의 경우처럼 지나친 보조단원 의존은 재고를 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드러진 문제점 외에 장점으로서의 특성, 이를 면, 作文의 過程과 例示, 단어의 뜻빛갈 설명, 자습제시의 해설 등은 어느 다른 중학생 교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2. 改善 方案

中國 朝鮮族의 民族語(즉, 母國語)教材의 親北韓的 性向은 地理的 特性이나 社會主義的 共通性에 기인하는 것보다는 教材用資料의 貧困에 더 큰 原因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民族語 教育이라는 次元에서 教材編纂을 위한 諸資料(現行 國語教科書를 비롯한 各種 資料)와 情報(言語教育의 諸理論과 方法)를 提供하여야 한다.

民族語의 異質化 克服 또는 同質性 回復 方案으로서 國語學者 및 國語教育者들 사이의 교류, 공동 관심사 論議를 위한 간행물의 교류가 증진되고 필요에 따라서 정기적인 모임 이를테면, 정기적인 학술대회의 교차개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韓國語의 國際化가 國益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韓國語의 國際化를 도모하는 뜻에서 在中 朝鮮族들의 母國語教育과 이들의 母國語를 통한 中國內 第二外國語 位置確保를 위한 諸般 研究와 努力이 政府單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韓國語와 中國語의 二重言語 教育에 관한 연구와 論議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南·北韓 간의 言語問題를 비롯한 諸問題로 직접적인 교섭, 論

議의 시도 외에, 다른 한편으로는 在中 朝鮮族의 中間役割利用 方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테면 言語統一方案의 協議도 南北 직접대화보다는 在中 朝鮮族의 주관하에 南北韓 言語 및 言語教育者(또는 言語政策關係者 포함)의 모임을 추진케 함도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民族語와 民族語에 의한 傳統文化의 定立을 위해 古典에 대한 論議, 分斷後의 文學作品 交流가 이루어져야 民族語教育의 實效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文學作品에는 時代性과 思想性이 내재해 있으므로 相互排他的인 要素는 일단 除外되어야 할 것이다.

中國 외 他地域의 해외교포들의 韓國語 使用 및 教育 現況이나 해당 국가의 小數民族政策을 고려하면, 在中 교포들의 民族語에 대한 열의와 中國政府의 政策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님을 새삼 느끼게 하고 또한 많은 희망을 안겨 준다.

VII. 結 論

이제까지 在中 朝鮮族의 韓國語教育의 實態를 把握하고 앞으로의 問題點改善策을 강구하기 위해 現行 초급중학교 교과서 「조선어문」의 내용을 皮相的으로나마 대충 살펴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中國 延邊朝鮮族自治州의 朝鮮語文 學習과 使用의 근거 및 기준은 同自治州의 「조선어문사업조례」에 준하고, 중국의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조선어문교재편집실) 간행, 現行「초급중학교교과서 조선어문」은 새로운 중학교 조선어문교재편집요강의 정신에 근거하여 편집된 것이다. 따라서, 이 새 초급중학교 조선어문 교재의 내용은 편집진 스스로의 고백처럼 과거의 교과서와는 달리 상당히 의욕적이고 획기적인 체계와 내용 편집으로 특기할 만한 것이다.

2) 그러나 教材 편성에 있어 單元設定의 目標나 趣旨(또는 主題)가 없거나 不分明하기 때문에 單元學習計劃을 도모할 수 없는 면이 많고, 또 題材에 따라서는 자습과문 또는 취급하지 않을 과문으로 분류된 것이 있어 單元學習의 指導나 計劃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제1권의 1. (해와 달), 2. (△물로초), 3. (*에밀레중)과보 조단원의 읽기에 관한 說明文 ‘읽기에서 감정정서살리기’가 포함되어 하나의 독립된 單元을 구성하는데, 이에 대한 구분이나 지도상의 유의점, 자습과문과 취급하지 않을 과문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이나 처리 방안을

밝혀 놓은 곳은 발견되지 않는다.

3) 題材의 數가 過多하므로 學習活動 또는 學習進行에 오히려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 作文, 語彙, 읽기 등의 補助單元의 資料와 題材番號가 명시된 正規資料를 교재상에서 일단 구분하면, 그 數가 第1卷에서 第6卷까지 前者는 $9 + 8 + 8 + 8 + 8 + 6 + 7 = 46$ 이고 後者는 $27 + 24 + 22 + 24 + 21 + 21 = 139$ 로서 各卷의 冊面數는 $323 + 305 + 300 + 364 + 294 + 360 = 1,946$ 面에 달한다. 全題材를 다 教授 또는 學習할 수는 없기 때문에 自習과 不取扱의 變化를 적절히 구사하지 않을 수 없는 편이다.

4) 內容記述의 한글專用的 文體的 特徵은 特記할 일이다. 民族語(韓國語)와 現地語(漢語)의 二重言語地域에서 實用性을 고려하면 절충적인 混用의 方法이 적절할 듯한데도 불구하고 漢語와의 語彙까지도 嚴格히 區分, 使用함은 漢語圈에서 混用으로 인한 完全同化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崇高한 뜻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言語使用技能 伸張을 위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技能과 言語知識으로서의 言語·文學內 各領域別, 安配나 相互關聯은 教材編輯이나 言語教育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 교과서상의 特徵으로는 讀解(읽기)와 作文(쓰기)의 편중 외에 이들 기능간의 效率的인 균형은,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6) 教材 內容의 題材選定이나 그 題材의 主題는 방대한 題材量에 비해 多樣性의 幅이 넓지 못하다. 이를테면, 題材選定の 범위나 대상도 아주 편협되게 특수 지역이나 시대의 범위(中國 또는 北韓)를 넘지 못

하고, 선택된 題材의 대부분 主題도 教育對象者(또는 學習主體者)의 실질적인 發達過程과는 무관하게 오직 社會主義 革命, 人民解放, 고통과 가난 감수(극기)의 미덕, 낭만과 부귀, 제국주의와 봉건제도와 대한 적대감, 反美·抗日 思想, 그리고 文學도 순수문학보다는 目的(左傾)文學 편중 등의 의도적으로 설정된, 한정된 主題에 부합하는 題材의 다양하지 못한 선택처럼 일정한 제한된 主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 어떤 종류의 글이거나 表現法에 있어서 教訓的인 說明이나 描寫가 큰 特徵이라 할 수 있는 데 반해, 主題的인 善惡, 美醜, 義·不義등의 對立的 表現에 있어서는 극심한 대립어인 卑語가 남용되고 있다. 이러한 表現法이나 言語禮節은 教育적으로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므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8) 歷史的으로나 地域的으로 韓國語文(學) 全般에 관한 보다 多樣하고 좋은 題材를 效率的으로 선정하여 그 適切性和 聯繼性에 합당한 題材로써 教材內容의 質을 높이고(豐富하게 하고), 言語使用技能과 各領域間的 言語教育的 關係를 고려하여 韓國語에 대한 民族語로서의 教材다운 內容을 갖출 수 있도록 研究, 補完策 강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선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相互協助的 努力이 계속되어야 한다.

(9) 民族語 異質化 克服, 民族語 統一案 協議뿐만 아니라 韓國語의 國際化를 위해서도 在中 韓人들의 役割을 기대하면서 相互交流, 協助와 支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간단하고 부분적인 교과서 내용분석으로써는 中國에서의 韓國語 教育 實態는 물론 韓國語 教材(中學校)의 내용을 제대로 分析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제기된 문제로 대체적인 傾向은 알 수 있으니, 앞으로 계속 이에 대한 修正·補完이 가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參 考 文 獻

- 고영근 편 (1989), 「북한의 말과 글」, 서울 : 을유문화사
- 金敏洙 감수 (1989), 「북한의 語學革命」, 서울 : 白衣
- 金奉郡 (1986), “高等學校 國語科 教科書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理念의 側面에서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第四回學術研鑽 「중·고교국어과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남미영 (1984), 「中共 延邊 韓人自治州 教科書分析」, 國土統一院
- 동북 3 성조선어문사업협의소조판공실 (1985), 「조선말규범집」,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88-1989), 「초급중학교교과서 조선어문」제 1권~제 6 권.
- 문교부 (1987), 「중학교 교육과정」
- (1988), 「중학교 국어과교육과정 해설」
- 朴榮順 (1987), “在中共韓人들의 文學活動과 韓國語 異質化問題”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二重言語學會誌) 第 3 號.
-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사전편찬실 (1988), 「조선말어휘규범편람」
- 이광호 (1986), “中學校 國語科 教科書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중·고교 국어과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金在昊·洪思滿 (1981), 「남·북한어 어휘에 대한 형태론적, 의미론적 비교연구」, 국토통일원.
- 중국조선어문잡지사 (1987), 「중국조선어문」 1 ~ 6 .

- 최기호(1987), “중공한국교포의 한국어 연구동향”,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 (二重言語學會誌) 第3號.
- 崔昌烈(1985), 「國語教授法」, 서울:開文社.
- 허동진(1988), “언어환경과 뜻갈림”,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학부 「조선언어문학논문집」, 연변대 출판사.
- 外 「중학교 국어」(문교부, 1989) 1-1, 1-2, 「국어」 중급 1, 2, 3 (東京:학우서방, 1984),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사업조례」(1988),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조선어문학습사용 상벌실시규정」(1989) 등.

ABSTRACT

Sung, Kwang-soo
(Korea University)

The basis and criteria of the teaching and use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autonomous district of Chinese Yonbyon is in accordance with "the Code of Korean Language Project," and Korean for Lower Secondary School published by Northeastern Korean Ethnic Publishing Company (Korean Language Text Compilation Bureau) wa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Accordingly, these new textbooks are outstanding with respect to their ambitious and substantial contents, as the editors proudly confess. A brief survey of the books, volumes 1 to 6, shows u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1. The absence or ambiguity of unit objectives or instructional purposes (or themes) often makes it difficult to make an instructional plan for each unit. In some cases there are reading selections classified for self-study or non-inclass teaching which make it difficult to plan a unit instruction. For instance, in the first volume we find (1) The Sun and the Moon (2) the Long-life Grass (3) the Emile Bell and the expository writing on reading "How to Keep up Your Emotion in Reading" which make one unit. This unit does not contain structural summary, nor any instructional guidelines nor any distinction between the readings that

need to be dealt with and those which need not.

2. There are too many materials for instruction and learning activities. Supplementary materials and regularly numbered materials amount to 46 for the former (9+8+8+8+6+7) and 139 for the latter (27+24+22+24+21+21) in the six volumes. The number of pages for each volume is quite large: 323, 305, 300, 364, 294, and 360 respectively. They amount to around 2,000. Since it is impossible to deal with all those materials, it is important to have part of them self-studied or not handled with altogether.

3. Sole use of Hangul in the description of the contents is unique. Although it may appear practical to mix Chinese characteristics with Hangul in a bilingual place of the local language (Chinese) and the ethnic language (Korean), strict distinction of vocabulary from Chinese equivalents and other efforts can only be understood as an endeavor to avoid the danger of complete assimilation of the ethnic tongue to the local language.

4. Proportion and mutual relevance of language skills, grammar and literature are expected to be given top priority in materials compilation and instruction. Such consideration, however, is not apparent.

5. Selection of reading materials and their topics do not cover a sufficiently large scope for the size of the materials. To be more specific, the materials cover only a partial range

temporally and geographically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themes are limited to socialist revolutions, people's liberation, the virtue of overcoming pain and poverty, hostility to romance and wealth, and hostility to the United States and Japan. Literary works are also limited to those of leftists (purpose literature) rather than pure literature.

6. Although moralistic explanation and description are considered to be of common nature in any writing and expression, the textbooks examined use extremely polaric expressions in describing thematic virtue and vice, beauty and ugliness, and justice and injustice. Such expressions and language managers are educationally inadequate and thus need to be reconsidered.

7.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more varied and desirable materials could be selected from Korean literature with a view to enriching the contents. These materials can be adequately arranged with respect to language skills and other educational considerations. In order to implement these goals, the authorities concerned in Yonbyon Korean Autonomous District are advised to make a request to South and North Korea for a joint research and cooperation on a simultaneous and equal basis. On such request the authorities concerned in South and North Korea will have to provide their best possible support to overcome increasingly heterogeneous cultural developments, to render

the ethnic language education maximally efficient, and to internationalize the teaching of the Korean language.

中國에서의 韓國語 教育 : 現況과 展望

— 현행 초급중학교 교과서 「조선어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제4 연구관실)

인쇄소 : 양 동 문 화 사
